



“
소상공인과
어려운 분들
입장 대변하는
의정활동 초점

윤희주
강릉시의회 의원

제11대 강릉시의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의정활동의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민 여러분!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 벌써 3년이 훌쩍 지나고 제11대 강릉시의회도 어느덧 1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계 등 재난 극복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년 6개월이 넘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들면서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의회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1년을 보내고자 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현장을 살피고, 끊임없는 문제 제기로 행정을 견제·감시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하나라도 더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2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솔솔지구와 유천지구 주차난 해소와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요 내용과 대안을 말씀해주신다면? 택지 조성 당시에는 주차장 용지가 솔솔지구 10개소 500대, 유천지구 3개소 200대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솔솔지구 6개소 262대, 유천지구 3개소 14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개인(노외) 주차장만 조성되면서 계획 당시보다 주차장 용지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 지역은 최악의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릉시는 최근 유천지구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강원양돈축산업 협동조합과 공영주차타워 조성 등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영주차타워는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이용이 쉬운 노면 주차장 조성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하천 복개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타워보다 조성비용은 다소 올라가지만, 주차면적은 두 배 이상 늘어나 접근성과 효율성은 훨씬 좋아집니다. 또한, 하천을 복개하면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여름철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릉시의 현안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5분 자유발언을 9회 정도 했습니다. 제288회 정례회 때 ‘문화콘텐츠로서 강릉 자수의 보존·전승을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릉의 관광 거점도시 지정 후 문화콘텐츠 개발, 여행객 유치, 인구유입 정책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강릉’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291회 임시회 때는 ‘민간공원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촉구’를 통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늘어난 사업비가 분양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해 줄 것과 신혼부부와 청년 등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작년 코로나 19가 처음 유행하던 때,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해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 19가 가라앉지 않는 현 시국에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지원방안 마련에 더 큰 역량을 쏟는 데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코로나 19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신다면?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됐지만,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또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웃는 얼굴로 시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지난 시간이 까마득해져 갑니다. 하지만 강릉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릉시민에게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강릉시를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땀 흘렸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평범한 일상을 다시 마주하고 그 일상 속의 행복을 되찾는 날까지 강릉시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G

제11대 강릉시의회 하반기 1년 의정활동 마무리 “신뢰받는 의회 되도록 최선을 다할 터”



강릉시의회가 하반기 1주년의 성과와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

강릉시의회는 지난 7월 5일 제11대 하반기 강릉시의회 1주년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책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주요 성과로는 ▲시민 생활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솔올지구·유천지구 등 도심 주차난 해소 촉구,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 등) ▲의정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자치법규연구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시정 현안에 관한 의회주도형 정책 포럼 개최 ▲유튜브 운영 등 시민 소통 채널 확대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의장협의회 구성 ▲입법전문위원 보강으로 의원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강희문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컸지만, 다양한 소통 채널 개설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의회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의회의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전문인력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원 전문성 및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니 인터뷰

강희문 강릉시의회 의장

“코로나 극복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늘 감사드립니다”

제11대 하반기 강릉시의회 1주년 성과와 의장으로서의 소회는? 강릉시 제11대 하반기 의장을 맡아 열정과 패기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임기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의정활동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판단하며, 코로나 19 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며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시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 속에서 내실 있는 시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항상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주요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협의나 정보를 제공해 대립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 관계를 한 차원 높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복리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 해는 제11대 의회가 지난 3년간 쌓아온 성실한 노력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하고 그 성과를 수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와 지역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자치분권이 주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민생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대변해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2021. 6. 17.~6. 25. / 9일간)



강릉시의회는 제29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위원회는 시민소통홍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등 9개 국·기관, 산업위원회는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준비단 등 7개 국·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위원회는 주문진 어촌뉴딜 300현장을, 산업위원회는 홍제 정수장과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방문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준비했으며,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예산확보 노력 현황 등 충실한 자료를 확보해 날카롭고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게 했다. 강희문 시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고 결산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21일간의 제292회 제1차 정례회를 마쳤다.

16개 국·기관 행정사무감사…
주문진 어촌뉴딜 300 현장,
홍제정수장,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강도 높은 감사 준비…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롭고 심도 있게 질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주요처분사항
△다양한 교육 마련
△진정서 및 온라인 민원 친절도 강화
△의정활동 홍보 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확인 철저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 81건
주요처분사항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보조금 사업 관리 철저
△공모사업 관리 철저
△어촌뉴딜 300 사업추진 철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각종 관광 분야 활성화 방안 마련
△‘강릉책문화센터’ 희망 도서 신청 제도 개선



상임위원회 산업위원회 시정 및 처리요구 60건
주요처분사항
△각종 위원회 관리·운영 철저
△인허가 처리 시 민원 발생 최소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기업 MOU 체결 후 사후관리 철저
△경관조명 업무 특정부서로 일원화 필요
△안전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차량 관련 대책 마련
△포남주공1단지 재건축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강릉시 주차난 해소 대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윤희주 의원

강릉시 주차난 해소 대책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교통 술을 택지지구의 경우 주차 문제도 심각하지만, 출퇴근 시간의 극심한 교통 지체 등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강릉 국제합창대회 등 국제 규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가장 기본은 전체 교통체계와 관련한 대책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시민을 위한 꼼꼼한 교통체계를 갖춰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관광도시에 걸맞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경관심의회와 건축심의회 불합리한 과정에 대하여



이재모 의원

경관심의회는 주위의 경관과 어울리도록 건축물 배치가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심의이고, 건축심의회는 경관심의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는 심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릉시의 경관심의회와 건축심의회는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한 방식으로 통합운영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심의회와 건축심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5분 자유발언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 협약 촉구 등



김복자 의원

강릉시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특구개발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녹색 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사업의 하나인 '경포 카운티 조성사업' 및 'JJ 강릉호텔&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 향후 발생할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과 관련한 부분을 이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와 협약 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금진온천 휴양지구 특구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와 이중으로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공개하여 강릉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릉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대영 의원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신설
-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신설

강릉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주현 의원

처리결과 원안 가결 **제안이유** 각종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관 추가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들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만들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나) 협력체계 구축 기관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신설

의정활동 이모저모

(사진 차례대로)
4대폭력예방 교육(6.29)
의정단 회의(6.30)
우기 재난취약지역 현장방문(7.7)
코로나 19 임시선별검사소 방문(7.20)

